

2025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답

1	①	2	④	3	⑤	4	③	5	②
6	③	7	④	8	③	9	①	10	④
11	②	12	①	13	④	14	④	15	③
16	⑤	17	②	18	②	19	②	20	⑤
21	③	22	④	23	③	24	①	25	①
26	①	27	②	28	⑤	29	①	30	②
31	②	32	③	33	④	34	⑤	35	①
36	④	37	⑤	38	③	39	⑤	40	③
41	③	42	⑤	43	②	44	④	45	③

해설

※ 화법 ※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도입부인 1문단에서 ‘저는 그때 ~ 관심이 생겼습니다.’라고 언급하며 담장의 종류를 발표 소재로 선정한 계기를 밝히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 자료 활용하기

발표에서는 자연석 담장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이어 나가는 방식을 택했음을 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자료2]는 이러한 자연석 담장의 곡선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하지만 발표에서 담장을 만들 때 곡선 형태로 이어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2]를 활용한다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

3.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학생 2’는 꽃담에 어떻게 문양을 넣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으나 ‘학생 1’이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학생 1’이 ‘학생 2’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발표를 들으면서 할머니 댁에서 담장을 본 경험을 떠올렸으며, 이를 통해 이해가 잘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를 듣고 장식용으로만 쓰인다고 알았던 기와가 실용적 역할도 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배경지식을 수정하고 있다. ③ ‘학생 1’은 어떤 종류의 담장이 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 2’는 꽃담에 어떻게 문양을 넣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④ ‘학생 2’는 발표에서 꽃담에 문양을 넣는 방법을 알려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 화법 · 작문 ※

4.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 이해하기

게시글에서는 올해 행사에 학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

시되어 있다. 이러한 게시글을 바탕으로 (가)의 ‘학생 3’이 ‘직접 체험할 ~ 건 어때?’라고 제안하고, ‘학생 2’가 이에 호응하며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게시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험 부스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① (가)에서 ‘학생 1’이 학교 SNS에 운동 방법이나 걷기 코스 등을 소개하는 활동을 제안하고는 있으나, 행사 일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 ‘학생 2’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마음 안정에 도움이 되는 강연을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 작년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③ 게시글에서는 인근 학교가 유연성 측정 대회를 열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으므로 우리 학교도 그러한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가)의 대화에서는 인근 학교의 사례를 알아보기 위한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의 ‘학생 3’은 ‘건강 급식의 날’의 운영을 제안하고 있고, ‘학생 2’는 이것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건강 급식의 취지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전교생이 참여하는 ‘건강 급식의 날’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학생 2’는 ㉠을 통해 건강 행복 행사의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추가할 프로그램도 함께 제안해야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을 뿐, 상대가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① ‘학생 1’은 게시글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학생 2’는 ㉠을 통해 자신이 떠올린 게시글의 내용이 그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체험 부스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학생 2’는 ㉡을 통해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 학생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운동 방법이나 걷기 코스 등을 SNS에 소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학생 2’는 ㉢을 통해 소개하는 글에 댓글로 운동 인증 사진을 공유하게 하는 추가적인 제안을 덧붙이고 있다. ⑤ ‘학생 3’은 심리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도 제안하자고 발언하였고, ‘학생 2’는 ㉣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마음 해우소’ 강연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학생 1’이 메모한 ‘학교 급식(㉠)’은 (가)의 대화에서 ‘학생 3’이 제안한 ‘건강 급식의 날’에 대한 것이고, 이는 (나)에서 건강에 좋은 식재료와 조리법을 활용한 ‘건강 급식의 날’을 운영해 달라는 제안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가)의 대화에서 건강에 좋은 식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건강 급식의 날’을 제안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이 메모한 ‘행사 기간 변경(㉡)’은 (가)의 ‘학생 1’이 언급한 ‘그럼 올해에는 ~ 괜찮지 않을까?’라는 행사 기간 변경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는 (나)의 3문단에 ‘이에 학생회에서는 ~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체육 대회가 있는 주에 행사를 주관으로 운영해 달라는 건의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② ‘학생 1’이 메모한 ‘체험 부스(㉢)’은 (가)의 ‘학생 3’이 제안한 ‘직접 체험할 ~ 건 어

때?’에서 체험 부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고, (나)의 3문단에 ‘채성분 분석’, ‘폐활량 측정’과 같은 건강 체험 부스의 구체적 체험 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④ ‘학생 1’이 메모한 ‘추가 프로그램(㉣)’은 (가)의 ‘학생 1’이 ‘강연 외에도 ~ 글에 반영할게.’에서 추가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찾아보겠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는 (나)의 3문단에 명상 프로그램이나 마음 치유 캠프를 제안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⑤ ‘학생 1’이 메모한 ‘행사의 의의(㉤)’는 (가)의 ‘학생 3’이 ‘건강 행복 ~ 것 같아’에서 행사의 의의의 건의문에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는 (나)의 5문단에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을 돌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의 의의를 ‘오아시스’에 비유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7. [출제의도] 교차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보기>와 (나)의 4문단 마지막 문장을 비교하면, ‘불안감과 우울감 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라는 내용이 4문단에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내용은 요즘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 상황을 환기하는 내용이지 심리 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주는 근거 자료는 아니다.

① <보기>의 ‘행사의 기간이 늘어나면’은 4문단에서 ‘행사가 주관으로 운영된다’로 수정되어, 변경되기를 희망하는 행사 기간이 주관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보기>의 ‘그래서 저도 ~ 정말 기대됩니다.’는 건강 행복 행사에 대한 개인적 기대감을 서술한 내용으로, 4문단에서는 삭제되었다. ③ (나)의 4문단에서 건강 행복 행사 프로그램의 효과로, ‘올바른 식습관도 갖추어 나갈 수 있고’라는 내용이 추가로 제시되어 있다. ⑤ <보기>의 ‘심리 건강 ~ 있을 것입니다.’는 4문단에서 ‘그리고 심리 ~ 있을 것입니다.’로 수정되어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도록 ‘그리고’라는 연결 표현이 추가되었다.

※ 작문 ※

8. [출제의도] 글쓰기 방식 파악하기

학생의 초고에서 푸드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만, 푸드테크가 발전해 온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① 1문단의 ‘푸드테크(FoodTech)란 식품과 ~ 것 을 의미한다.’에서 푸드테크라는 용어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② 2~4문단에서 ‘식물성 대체육’, ‘스마트팜’ 등 푸드테크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④ 푸드테크에 따른 기대 효과를 환경적 측면, 식량 문제 측면, 삶의 질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⑤ 1문단의 ‘최근 푸드테크 ~ 영향을 끼칠까?’에서 푸드테크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묻고, 2~4문단에서 이에 대해 답하고 있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ㄱ-1은 2000년 대비 2050년에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ㄱ-2는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ㄴ은 대체육의 한 종류인 배양육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ㄴ은 전 세계 인구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필요한 식량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과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식이 설계 알고리즘이 주목받고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스마트 푸드체인 기술은 머러지는 식품의 양을 줄여 결과적으로 식량 공급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이 감

소할 것임을 드러내는 ㄱ-1의 자료를, 스마트 푸드체인을 활용하려면 식량 공급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 주는 근거로 3문단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㉒은 식물성 대체육 이외에 대체육의 또 다른 사례인 배양육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새로운 육류 생산 방법의 사례로 2문단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㉓은 식이 설계 알고리즘이 고령자나 환자 등 특정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게 최적의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식이 설계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구체적인 예시로 4문단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㉔ ㄱ-1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㉕은 전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2050년에 필요한 식량의 양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임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푸드테크가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로 3문단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㉖ ㄱ-2는 기존의 일반적 육류에 비해 식물성 대체육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㉗은 배양육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고기에 비해 적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대체육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근거로 2문단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글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푸드테크의 발전 전망은 '푸드테크는 침탄 ~ 것으로 보인다.'에서 나타나고 있고, 독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은 '푸드테크가 우리 ~ 하지 않을까?'에서 나타나고 있다.

*** 문법 ***

11.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유음 탈락은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ㄹ'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ㄴ, ㄷ,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어미 '오'가 결합할 때,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ㄴ, ㄷ, ㅅ, ㅈ' 앞에 'ㄹ'이 있을 때 그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① 유음 탈락은 '발등', '철새'와 같은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ㄹ'이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일한 음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③ 'ㄹ'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오'가 결합할 경우 'ㄹ'이 탈락한다. ④ 'ㅎ'의 탈락은 'ㅎ'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 ⑤ 'ㅎ'이 탈락하는 경우와 'ㅎ'과 다른 자음이 만나 축약되는 경우 모두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12.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탐구하기

㉑은 어간 '살'에 어미 '-ㅂ니다'가 결합하여 '삼니다'로 활용되어 'ㄹ'이 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어미 '-ㅂ니다'는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아니다.

13. [출제의도] 관형사절의 시제 탐구하기

'읽은'은 동사 '읽다'의 어간 '읽-'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경우이므로 과거 시제이다. 현재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간 '읽-'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읽는'으로 활용해야 한다.

① 동사 '자다'의 어간 '자-'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② 형용사 '푸르다'의 어간 '푸르-'에 관형사형 어미 '-던'이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③ 형용사 '깨끗하다'의 어간 '깨끗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

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⑤ 동사 '떠나다'의 어간 '떠나-'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결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14. [출제의도] 높임 표현 탐구하기

'신생님께'에서 '께'는 부사격 조사 '에게'의 높임에 해당하며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문장의 주체인 동생을 높이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문장은 ㉑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고모를 뵈고'에서 '뵈다'의 높임으로 '뵈다'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 표현이 나타나지만 주제를 높이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께서'나 '-(으)시-' 등과 같이 주제를 높이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입으셔야'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제를 높였지만 특수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할머니께서는'의 '께서'에서 주제를 높이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 '주무시니'에서 '자다'를 높임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제를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보밋'(봄에)은 '왔(와 있는)'과 호응하는 부사어이므로 '보밋'의 '이'는 부사격 조사이다.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부사격 조사로 '이'도 쓰였다.

① '부테'는 '부터'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것이다. ② '안조시니'는 어간 '안-'에 어미 '-으시니'가 결합하여 이어 적기가 된 것이다. ④ '뵈노니'에서 '뵈'의 'ㅂ'을 통해 어두자음군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피해'는 'ㅎ' 종성 체언인 '피ㅎ'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다.

*** 문법 ***

□ 출처: (가) 김중원, 「근대 경험론 전통에서의 미학의 전개」
(나) 존 듀이, 「경험으로서 예술」

16.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는 샤프츠베리가 말한 '취미', '무관심성'에 대해 제시하고, 미적 경험의 과정에서 취미, 무관심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나)는 듀이가 말한 '하나의 경험'에 대해 제시하고, 예술에서의 창작 행위와 감상 행위에서 '하나의 경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미적 경험의 과정에 특정 철학자의 견해를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나)는 듀이가 제시한 '질서'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을 뿐, 미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듀이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의 3문단을 통해 취미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자연적 본능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취미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계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취미가 지속적인 교육과 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2문단을 통해 인간은 신에 의해 형성되어 예술품도 만들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1문단을 통해 인간이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유기체이자, 경험의 주체임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2문단을 통해 '하나의 경험'이란 어떤 경험의 시작부터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이루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경험임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3문단을 통해 창작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어떠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에 더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1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가)의 4문단을 통해 대상의 내재적 가치에 주목하는 태도가 무관심성에 근거하여 대상을 판단하는 태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다의 물결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며 바다의 광활함에 감탄하는 것은 사적 욕망을 배제한 채 대상이 지닌 내재적 가치에 주목하여 아름다움을 관조하는 태도에 해당한다.

①, ⑤ 별, 꽃에 대해서는 모두 도구적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③ 은행나무를 보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대상에 대해 무심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④ 조각상을 소장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욕을 보여 주는 것이다.

19.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취미란 미를 감각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내감이자 미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질서이란 경험 상황만이 가진 고유하며 독특한 성질을 의미하며, 경험 주체가 경험 대상과 상호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㉑은 미를 감각하는 독립적인 능력이고, ㉒은 경험 대상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성질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㉒은 경험 주체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㉑이 객관적으로 파악된 미적 대상의 특성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취미는 인간이 미를 감각하는 내감이자 미를 판단하는 능력이므로 ㉑이 주체가 대상의 특성을 판단한 결과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질서는 어떤 경험이 '하나의 경험'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 경험이 가지는 고유하고 독특한 성질이 지, 경험 주체가 경험의 과정에서 자신이 의도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취미는 대상을 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미를 판단해 내는 능력이라고 했으므로 ㉑이 미적 대상을 감각할 때 즉각적으로 발휘되는 능력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질서는 경험 주체가 어떠한 경험 상황에서 직접 포착하는 것이고, 경험 주체에게 지배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㉑이 미적 대상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능력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샤프츠베리는 본능의 왜곡 때문에 사람마다 미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④ 자체가 미인지 미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면 샤프츠베리의 관점에서 취미가 왜곡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그럼 속 인물의 정제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취미가 왜곡된 결과로 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듀이는 작품의 의미와 가치가 감상자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작품에 대한 해석은 감상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⑤의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감상자의 연습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로 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샤프츠베리의 미학

에서 우주의 속성인 질서, 균형, 조화를 지닌 대상은 아름답다고 여겨진다. <보기>를 통해 ㉔는 대칭과 비례에 따라 건축물과 인물을 균형 있게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㉔의 형식적 구성이 우주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보아 샤프츠베리가 아름답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㉒(나)의 3문단에 따르면, 창작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어떠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 <보기>에서 라파엘로가 그림을 통해 감상자가 공간의 깊이감과 현실감을 느끼도록 원근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라파엘로가 ㉔에 원근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두이가 감상자를 고려한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창작 행위를 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㉓(나)의 3문단에 따르면, 창작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창작자는 감상자로서의 관점을 지니고 자신이 의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보기>를 통해 라파엘로가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 고려하며 철학자들을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두이가 이러한 창작 과정을 창작자 스스로가 감상자로서의 관점에서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간 과정으로 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㉔(가)의 2문단에 따르면, 샤프츠베리는 미를 3등급으로 나누고 예술품을 가장 낮은 등급의 미로 보았다. 그러므로 샤프츠베리가 ㉔를 자신이 생각하는 미의 위계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두이의 관점에서 감상자는 자신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 작품을 감상해야 하므로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두이가 ㉔를 감상자에 의해 재창조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달성(達成)되다’는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달성되는’을 ‘세워지는’과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㉑ ‘간주(看做)되다’는 ‘상대,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다’의 의미이므로 ‘간주된다’를 ‘여겨진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㉒ ‘발현(發現)되다’는 ‘숨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다’의 의미이므로 ‘발현되는’을 ‘나타나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㉔ ‘상이(相異)하다’는 ‘서로 다르다’의 의미이므로 ‘상이하계’를 ‘서로 다르게’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㉕ ‘대면(對面)하다’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다’의 의미이므로 ‘대면하는’을 ‘마주하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 사회 ※

□ 출전 : 이재인,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22.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7문단에서 조립식 구조인 목조 건축물은 일체식 구조인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과 달리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 올려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은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㉑ 1문단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요건에 맞춘 설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㉒ 3문단에서 나대지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대지이고,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㉓ 7문단에서 주요 구조부는 철거 시 건축물의 안전성에 결정적 위험이 되는 구조 부분을 의미하며, 내력벽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나 옥외 계단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

된다고 하였다. ㉔ 3문단에서 천재지변으로 기존 건축물이 전부 소실된 대지에 새로 축조한 건축물의 규모가 재축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축이라고 하였다. 6문단을 통해 층수와 높이를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짓는 것은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층수와 높이를 증가시킨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한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증축에 속한다고 하였다.

㉑ 4문단에서 증간층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증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㉒ 4문단에서 건축물의 설비 설치하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급수를 위한 물탱크 설치하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㉓ 3문단에서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 내에서 이 부속건축물과는 별도로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는 신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㉔ 4문단에서 기존 지하층을 둘러싼 지표면을 깎아서 그 층이 지상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증축에 속한다고 하였다.

24.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서 기존 건축물이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서지는 것은 해체,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서지는 것은 멸실이라고 하였다. 5문단에서 ㉑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6문단에서 ㉒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천재지변으로 기존 건축물이 소실된 ㉑과 달리 ㉒은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로 기존 건축물이 소실된 상황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㉑과 ㉒ 모두 한 대지에 있는 여러 동의 건축물이 모두 소실되었을 때 일부 동만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㉑과 ㉒ 모두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던 대지와 동일한 대지 내에서 이루어진다. ㉔과 ㉕ 모두 한 건축물의 일부만 소실된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종전과 같게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㉑과 ㉒ 모두 건축물의 높이를 기존 건축물보다 낮게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2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4문단에서 건축물의 규모에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포함된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인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A는 기존 건축물을 모두 부수고 건축물의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 층고만 높인,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의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였다. 이는 개축에 해당하므로 증축에 해당한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㉑ 3문단에서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속 용도의 건축물을 부속건축물이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증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A가 부속건축물인 경비실을 추가로 짓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㉒ 4문단에서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을 연면적이라고 하였다. B가 연면적이 900㎡인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인 800㎡를 초과하는 규모로 축조하는 것이므로 신축에 해당한다. ㉔ B가 소유한 건축물은 지진으로 멸실되었다. 6문단에서 기존 건축물이 전부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하며 층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는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면적의 합계는 그 대지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므로, 재축할 건축물

의 연면적의 합계(700㎡)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800㎡)보다 작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B가 층수와 높이는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이면서 층수만 3개 동으로 늘려서 축조할 수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㉕ 5문단에서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이동하여 개축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㉔는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㉑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

㉒ ‘옮기는데’는 ‘소문 따위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먼저 가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㉓ ‘옮겨서’는 ‘어떠한 사실을 표현법을 바꾸어 나타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㉔ ‘옮기고자’는 ‘어떠한 일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다’의 의미로 쓰였다. ㉕ ‘옮겨’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때어 놓다’의 의미로 쓰였다.

※ 과학 ※

□ 출전 : 리처드 도킨스, 「진화론 강의」

27. [출제의도] 글의 읽기 전략 파악하기

2문단에서는 광세포 그 자체는 빛의 방향이나 주변 대상의 형태를 감지할 수 없어서 암막이 있는 광세포를 배치한 오목한 눈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고, 3문단에서는 오목한 눈은 하나의 상을 파악해 낼 수 없어서 빛의 유입구를 좁힌 바늘구멍 눈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4문단과 5문단에서 바늘구멍 눈은 빛의 유입구를 더 넓히거나 좁히는 것 모두 어려워져 빛의 굴절 원리를 이용한 수정체 눈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눈의 유형별 차이점에 주목하여 각 눈의 유형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글을 읽은 것은 적절하다.

㉑ 거머리, 대합, 전복, 척추동물 등 오늘날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눈의 유형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그 눈의 유형이 일정하면 진화의 단계를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오늘날 생태계에서 발견되는 눈의 유형과 발견되지 않는 눈의 유형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㉒ 빛의 존재 여부를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지닌 피부부터 수정체 눈에 이르기까지 생물의 종별로 서로 다른 다양한 유형의 눈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므로, 다양한 생물 종의 눈이 고차원적인 눈의 유형으로 수렴해 가는 원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해하며 읽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5문단에서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빛의 유입구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포유류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굴절률을 조절한다는 것은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임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유류가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킨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㉑ 1문단에서 진화론자들이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선택 과정의 수평적으로, 오늘날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㉒ 1문단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불가능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면서 불가능 산의 최정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눈은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라고 보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㉓ 2문단에서, 눈의 진화 과정에서 시각 단계에 해당하는 불

가능 산의 밑자락에는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지닌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의 피부가 자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갯지렁이의 눈은 오목한 눈임을 확인할 수 있고, 3문단에서 오목한 눈은 하나의 상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과 망막에 하나의 상만 맺힐 때까지 빛의 유입구를 좁혀 간 결과 앵무조개의 눈처럼 바늘구멍 눈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바늘구멍 눈인 앵무조개의 눈은 오목한 눈인 갯지렁이의 눈과 달리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모습이 망막에 하나의 상으로 맺힌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서 빛이 파동처럼 움직이며 서로 간섭을 일으켜 상이 흐릿해지는 회절 현상을 보인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빛의 속성에 따른 회절 현상은 빛의 유입구가 좁아질수록 심화된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속성은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더 좁히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지 빛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빛은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된다고 했고, 빛의 유입구를 더 넓힌 뒤에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그 뒤에 끼워 넣음으로써 빛의 유입량은 늘리면서도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힐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빛이 투명한 물질을 통과할 때 굴절되는 성질은 빛의 유입구를 좁히면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고, 빛의 유입구를 넓히면 하나의 상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바늘구멍 눈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오목한 망막은 하나의 상을 파악해 내지 못한다고 했고, 4문단에서 빛의 유입구가 좁아지면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많은 빛이 유입될 때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이 아주 밝지 않은 곳에서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빛의 유입구를 조절하는 데, 즉 빛의 유입구를 넓히는 데 제약이 된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오목한 눈에 상이 맺힐 때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했으므로 오목한 눈에는 많은 빛이 유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연립상 겹눈은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가진 낱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직선 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맺힌다고 했으므로, 연립상 겹눈은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통과한 만큼의 빛만 망막에 맺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목한 눈 대비 연립상 겹눈의 망막에 더 많은 빛이 닿게 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유입되는 빛의 양은 광세포가 어떠한 표면에 배치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빛 유입구의 너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므로 빛의 유입량을 판단하는 근거로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광세포 그 자체는 동물에게 빛의 존재 여부만 알려 주므로 빛의 방향과 주변 대상의 형태까지 감지하려면 한쪽 면에는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연립상 겹눈이 빛의 유무를 넘어 관측 대상의 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연립상 겹눈의 광세포도 한쪽 면에는 암막이 있음을, 즉 투명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연립상 겹눈은 상하가 뒤바뀌지 않는 정립상을 만든다고 했으므로, 최종적으로 인식된 상은 실제 관측 대상의 모습과

상하 방향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바늘구멍 눈을 통해 단 하나의 온전한 상만 망막에 맺힐 수 있게 된다고 했고, <보기>에서 연립상 겹눈은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가진 낱눈을 통해 일직선 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맺힌다고 했다. 따라서 연립상 겹눈의 각 낱눈이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만 감지한다는 점에서 바늘구멍 눈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연립상 겹눈에는 바늘구멍 눈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고 했으며, 각 낱눈은 바늘구멍 눈과 마찬가지로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통해 빛이 들어오는 구조이다. 따라서 연립상 겹눈의 각 낱눈에는 도립상이 맺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5문단에서 수정체를 거친 빛은 여전히 도립상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현대시 **

□ 출전: (가) 장만영, 『항수』
(나) 조지훈, 『마음의 태양』

3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2연의 '내가 젖는다', (나)는 4연의 '푸른 하늘로'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① (나)는 '살게 하라', '달게 받으라'라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만, (가)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용언의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고 있지 않다. ④ (가)에는 '노오란', '은색', (나)에는 '푸른'이라는 색채어가 있지만, (가)와 (나) 모두 색채어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⑤ (나)의 1, 4연은 전체적인 형식이 유사하고 3, 4행은 거의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어 수미상관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가)에는 수미상관 기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32.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㉔은 '바다'의 '물결'에서 받은 느낌을 '날개'에 비유하여, '날개같이 보드러운' '바다의 품'에 안겨 질 수 있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추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바다에서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의 고통을 위로받고자 한다. 이는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바다의 부드러운 물질 안에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화자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㉔은 '커피처럼' '쓰'다고 미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삶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㉔은 '어릴 적' '고향'의 기억이 건잡을 수 없이 떠오르는 상황을 '파도'가 화자에게 달려드는 역동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㉔은 '햇살'을 향해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하늘'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은 '하늘'로 나아가는 '노고지리'의 모습을 상층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인 '높은 날'을 추구해 나가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나)의 화자는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숭고한 태도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연에서 '한 송이 꽃'은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 '웃'는데, 이때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눈

물의 이슬'을 통해 꽃이 피게 된다. 따라서 '웃'으며 '가시밭길을 넘은' 다음에야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차다', '괴로움', '슬픔' 등은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된 시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어를 언급한 것이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화자가 바다를 보며 떠올리는 '고향', '어머니', '품' 등은 화자의 어린 시절 기억과 관련 있는 시어이다. 따라서 화자가 이러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현재 화자가 있는 '바다'라는 공간을 통해 과거의 긍정적 기억이 환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③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깃'는 것은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화자가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깃'는 것이 추억을 되새기면서 현재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⑤ '고난'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화자는 '고난'을 '사랑'해야 '원광'을 맞이할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고난'을 '사랑'해야 '원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고통을 수용해야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 현대소설 **

□ 출전: 이동하, 『파련』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A]는 서술자인 '나'가 삼촌의 죽음이 가진 의미를 생각하며 삼촌의 장례식에 아내와 동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를 내면의 서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B]는 '나'의 시선으로 관찰 대상인 삼촌의 행동을 묘사하여 삼촌의 비통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① [A]는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상황을 직접 전달하고 있어 적절하지만, [B]는 서술자인 '나'의 시선으로 삼촌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 이야기를 전해 듣는 방식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A]는 삼촌의 죽음으로 인해 과거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과거를 회상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B]는 '서둘러 퇴근 ~ 되지 않았나'에서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변화하는 추이가 드러나지 않으며 [B]는 공간의 변화는 있으나 인물 간의 관계 변화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5.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파악하기

㉔은 고향과 친지에 대해 '집착'이 '별난' 처가와 달리 고향이나 친지와 관계를 끊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나'가 처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6. [출제의도] 사건의 의미 파악하기

'한 세계'는 6:25 전쟁 중 '나'와 삼촌을 포함한 가족이 아버지로 인해 수모를 겪었던 치욕스러운 기억이다. 이러한 기억으로 '나는' 오래전부터 과거와 '한사코' 담을 쌓고 지내고 있었으며 아내에게조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지 못하고 은폐해 왔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한 것은 아니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삼촌이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났다고 하며 '한 구덩

이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상처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삼촌이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① 삼촌의 '가슴에 남아 있는 상처'는 전쟁 중에 박힌 파편이 원인이 되어 생긴 것으로 전쟁의 폭력성을 보여 준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② 처가가 고향과 친지에 대해 '관심과 집착'이 '별난' 것은 전쟁으로 인해 고향과 가족을 잃은 실향민의 아픔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전쟁 중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수모로 인해 생긴 정신적 상처로 고향과 연을 끊고 살아가던 '나'가 삼촌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고향에 '발걸음 들여놓'지 않으려는 것은,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갈래 복합 ****

□ 출전: (가) 김기홍, '채미가'
(나) 정은, '가향전설'

3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의 '뒤라서 그러 내리'와 '팔진미를 아랑곳 하겠는가'에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욕심 없이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며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① (가)에서 화자가 자연물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모습은 드러나지만, 감정 이입을 통해 대상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서 글쓴이는 발을 개간하는 과정과 개간을 위해 힘써 노력한 경험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는 '홍이로다'와 같은 영탄적 표현이 쓰이지만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며, (나)에서는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에서는 '우르릉 뿔뿔'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개간 현장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지만, (가)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39.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은 화자가 거리를 두고 멀리하려는 대상이다. 화자는 명성과 부귀를 잊고 '세상'과 떨어진 채 자연 속에 살며 안분지족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은 마음의 밭에서 자라는 '인', '의', '예', '지'를 말한다. 글쓴이는 거친 밭을 잘 개간해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듯이, 사람들이 각자 마음의 밭을 잘 일구어야 '인', '의', '예', '지'라는 씨앗을 잘 키워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④ ㉠은 화자가 마음으로부터 경계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은 글쓴이가 마음의 밭에서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이지, 물질적 여유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아니다.

40. [출제의도] 맥락의 의미 파악하기

㉢는 사심과 욕심이 생기면 마음의 밭이 황폐해진다는 의미이지, 마음의 밭이 결국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가)에는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누리는 소박한 삶에 주어진 대로 만족할 줄 아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화자가 겨울의 '갇웃'과 여름의 '갈웃'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며 가난한 환경을 이겨 내려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는 꽃이 핀 아침과 달이 뜬 저녁에 '마음껏 노닐'며 자연을 즐기는 모습에서 유희자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며, '부귀를 다 잊'었다는 말에서 세속적 욕망에 초탈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② (가)에서 화자는 봄을 맞이하여 자신이 만끽하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④ (나)에서 글쓴이는 밭을 개간하는 과정을 묘사하여 황무지와 다른 밭을 예전의 비옥한 밭으로 일구어 나가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나)에서 글쓴이는 거친 밭을 일구며 겪은 경험을 인간의 마음을 닦는 일에 빗대어 사람들도 각자 자기 마음속의 좋은 밭을 잘 일구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고전소설 ****

□ 출전: 작가 미상, '쌍구진언'

42.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이 구슬의 ~ 행하도록 하라.'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인 유 씨는 서 공자와 왕혜란의 혼례를 멀리 않은 장래에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과거에 합격하는 대로 혼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④ 월향의 '우리 부인이 ~ 몸을 피하셨습니다.'라는 말에서 왕혜란은 번고가 일어날 것을 짐작하여 미리 몸을 피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하기

[B]의 '제왕은 당당한 ~ 금지옥임이요 천송군왕 이거늘'에서 상대의 신분을 언급하며 '어찌 차마 ~ 일을 자행하시나이까?', '군부의 명을 ~ 처벌이 없으리오.'라며 상대의 지위에 맞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질책하고 있다.

① [A]의 '부모님의 소식을 ~ 하지 마소서'에서 왕 공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상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다고 볼 수 없다. ③ [B]의 '어찌 차마 ~ 일을 자행하시나이까'에서 물음의 형식으로 상대를 질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일게 될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A]의 '부모의 생사를 모르는데'에서는 서 공자가 자신의 문제 상황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B]에서는 월향이 문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와 [B]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A]는 '진(秦)나라와 진(晉)나라의 왕실이 혼인'한 것에 대한 고사를 인용하여 혼인 자체에는 긍정적인 인물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B]는 '옛날 진나라 상왕'의 고사를 언급함으로써 제왕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4.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자음의 구슬은 서 공자와 왕혜란이 인연을 맺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이지만, 서 공자는 자신의 인연이 왕혜란인 것을 모르고 살았으므로 구슬을 통해 서 공자가 자신의 정혼 상대로 왕혜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부인 유 씨는 ~ 밤낮으로 걱정하였다'는 서술과 왕 공자가 '웅 글자가 ~ 정혼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부인 유 씨가 혼사를 추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서 공자가 자음의 구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왕 공자가 서 공자에게 '다름 아니라 ~ 정혼하지

못하였도다'라는 말로 왕혜란의 과거 내력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왕 공자의 '누이 동생이 태어날 ~ 정혼하지 못하였'다는 말에서 자 구슬과 웅 구슬을 가지고 있는 왕혜란과 서 공자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배필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석파가 가져온 서 공자의 구슬은 부인 유 씨가 찾던 구슬과 관련이 있고, 이를 왕 공자가 알게 된다는 점에서 왕 공자가 서 공자와 왕혜란이 인연임을 우연히 알아차리도록 만드는 소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왕 공자가 사건 전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서 공자에게 '자친의 소식을 ~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과 '서둘러 장가를 ~ 알아붙이'고 '옳'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부모에 대한 효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보편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왕 소저의 구슬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석파가 서 공자에게 구슬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부인 유 씨에게 '곡절을 고하'는 것에서 부인 유 씨가 서 공자와 왕혜란의 혼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보조 인물이 중심인물의 애정 서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제왕이 '조정의 경사가 부인'인 왕혜란을 납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악인형 인물이 여성의 절개라는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⑤ 월향은 주인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제왕에게 납치당하는 인물로, 제왕을 대하면서 '조금도 겁내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죽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조 인물이 악인형 인물과의 대립 상황에서도 주인에 대한 충성을 다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인물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